세 ’의 장에서 유교수는 진명집의 묵매기墨梅記를 들어‘ 묵매기는 매화가 활짝 핀 봄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어울려 등불을 밝히고 밤새껏 마시면서 흥에 겨워 술잔에 매화꽃을 흩뿌리는 풍류와 운치를 말하면서 격조높은 매화 그림의 대가 조지운趙之耘을 기리는 내용 인데 이 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워낙 깊다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진명은 회화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사물의 겉모습만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형사形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묘사는 데 있다는 전형적인 문인화론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서 형식이나 화보畵譜에 의존하는 병폐를 버리고 작가의 심회心懷를 적극 발현하는 태도, 그리고 대상을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파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진명의 묵매기는 단순한 감상의 인상비평이 아니라 철학적 논리까지 이끌어 이물관물以物觀物과 이리관물의 두 입장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태도를 말하면서 이리관물에 근거한 화론을 전개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진명의 논리는 대단히 철학적 사변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회화 이론가로 삼을 수도 있다.

또 진명의 회화관을 잘 보여주는 글로는 석양정石陽正 이정李霆과 능계수綾溪守 이급李伋의 대나무 그림에 부친 글 제석양능계묵죽본후題石陽綾溪墨竹本後가 있다. 이 글은 석양정 이정과 능계수 이급의 대나무 그림은 기상이 빼어나고 운치가 있어 선비의 소탈하고 해맑은 모습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였다면서 그들의 대나무 그림을 소동파가 문동文同(1018~79)의 대나무 그림에 품평한 고사까지 인용하고 있다.

진명은 사물의 기상과 의취意趣를 전하는 것이 진정한 회화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회화관은 철저한 문인화론이었고 형사론을 통박한 가장 강력한 전신론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유교수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 진명의 전신론과 화상설畵像說 ’의 장에서 이를 보다 명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진명의 화론은 제목부터 본격적인 화론이 예상되는 전신론과 화상설에 완연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 오석민 연구위원이 학술대회의 사회를 보고 있다.

전신론은 진명 자신의 개성적인 용모로 인해 친한 친구 이인상이 초상화 그리기를 종용한 일과 자신의 전신傳神에 관한 견해, 어느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화사 변상벽卞相璧의 거만한 태도와 당대 진신縉紳 사대부들의 무식한 행태에 대한 불만을 해박한 중국화론과 회화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펼친 회화론을 담고 있다. 화상설은 집요하게 자기 초상화를 그려주고 싶어하는 이인상의 탁월한 재주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거부하는 입장과 견해를, 중국화론을 폭넓게 섭렵한 식견으로 해박하게 피력하며 교묘히 화가와 줄다리기하는 내용인데 편편이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당당한 화론이라는 것이다.

진명은 이처럼 형사는 잃을 지언정 기운은 빼앗길 수 없다면서 초상에서도 의경意境을 잡아내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진명이 왜 당대의 초상화 대가로 꼭 닮게 그리는 뛰어난 사생력을 갖고 있는 변상벽 보다도 문인화의 정신을 견지한 이인상을 지지하는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이 그는 누구보다도 전신사조傳神寫照의 미학을 주장하는 전신론자였다. 진명의 이러한 전신론은 그의 시에 대한 생각에도 그대로 있다. 그에게 있어서 시란 모름지기 천기天機의 발로에 있는 전신이었다.

진명의 전신론은 이처럼 시와 회화 모두에 통하는 것이었다. 그런 중 진명이 자신의 예술론을 정연하게 피력한 글은 단연코 화상설畵像說이다. 이 글은 문장구성에서도 명문이라 하겠지만 상징수법에 의한 논리전개가 탁월하여 조선 후기 화론의 높은 수준을 반영하고 뛰어난 이론을 피력한 것이라 할만하다.

화상설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 글은 그가 초상화에서 중국의 전신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글의 묘미는 본론이라 할 이인상의 전신법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입장을 말한 그 뒷부분이다.

이렇게 초상화 그리는 것을 사양한 진명은 두보의 시에 어려있는 전신의 경지를 예로 들면서 이인상 자신이 그만한 수준이 못될 것같으면 스스로 포기하라는 글로써 이 장문의 화상설을 끝맺는다. 그의 전신론은 이처럼 시와 회화에 두루 통한다는 간접적인 시사인 것이다.

진명의 전신론은 이처럼 시·화를 관통하는 당당한 예술론이자 미학이었다.

이상은 유교수의 글을 단락별로 발췌하여 연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어놓은 것이다. 유교수는 그 기조강연문의‘ 맺는 글 ’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요약하였다.

이와 같이 진명 권헌은 조선왕조 영조년간의 빼어난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화론가였다. 그의 회화에 대한 식견은 신사임당·탄은灘隱 이정·능계수·이급·설곡雪谷 어몽룡魚夢龍·조지운·겸재 정선·능호관 이인상·화재和齋 변상벽에 이르고, 중국의 한간韓幹·주방周昉·소동파蘇東坡·문동·진무기陳無己의 고사를 정확히 인용하고 있고 정자程子의 전신론, 임화정林和靖의 고사도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는 광려백운도匡廬白雲圖라는 그림을 보면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였고 구학도鷗鶴圖를 소장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거기에 빗대며 위로를 받기도 했을 정도로 그림을 즐겼다. 그리고 화상설과 전신론이라는 수준높은 화론을 전개하여 조선시대의 빼놓을 수 없는 화론가임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진명 권헌의 이런 화론을 통하여 조선왕조 영조년간의 문예부흥이 진신간에 넓고 깊은 안목의 소유자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지양박사의 제1주제

성균관대 이지양 박사의 제1주제 ‘ 진명 권헌의 우화시에 나타난 인정세태 ’는 ‘ 문제제기·약육강식의 질서속 생존의 지혜·생존의 고달픔과 생존의 참 의미·맺음말 ’의 4장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그 1장 문제제기에서 이박사는‘ 진명집은 전체 16권8책의 필사본과 10권5책의 목판본이 전한다. 필사본은 임형택 교수 소장본으로 1992년에 한국한문학회 자료총서3으로 영인되었고 목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연구에서는 중심 텍스트를 필사본을 영인한 진명집으로 삼고 목판본을 참고자료로 삼았다. 진명집은 필사본이나 목판본이나 3분의2 가량이 시로 구성되어 있다. 필사본을 기준으로 할 때, 진명이 남긴 시는 전체가 2천여 수이고, 부賦·고시古詩·율시律詩·배율排律·절구絶句 등 여러 형식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그 가운데 장편 고시가 560여수이다. 장편고시는 진명의 특장特長이라고 그 당대에 이미 자타가 공인한 것으로 그 장편시의 세계는 매우 다채롭다. 시의 편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경향은 18세기 당대의 현실 문제를 시로 소화한 것이다. 주로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소재를 선택하여 시를 지었다.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소재를 취하여 읊기도 하고 동물을 빌어 우화시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고 말했다.

▲ 성균관대 이지양 박사가 제1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충남대 정경훈 박사가 제2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동양의 문학적 전통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인간의 분신으로 여기고 일체감을 느끼며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해온 세월이 오래이다. 도가道家의 무위자연관無爲自然觀이나 유가儒家의 요산요수관樂山樂水觀도 자연친화감의 산물이다. 그래서 동양문학은 자연속에서 은둔하는 즐거움을 표현한 것이 많고 우주의 질서와 이치를 체득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가의 자연관은 자연현상에 인간사회의 질서를 투사시키려는 경향이 강하여 난초·대나무·솔·국화·매화는 지사志士의 풍모를 상징케 하고 험상궂은 구름은 간신에, 우뚝한 산은 충신에 비유한다. 이러한 비유나 유추가 합리적 설득력을 갖추고 있으면 심성 도야에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도덕적 설교가 거부감을 낳는다. 상징이나 비유가 다채롭더라도 주제가 실상을 왜곡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문학적 감동을 감쇄시킨다는 요지를 피력하면서 이박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런데 진명의 우화적 시는 자연을 빌어 표현하는 기법은 그대로 이어갔으되 자연현상에‘ 유가의 도덕적 선입견 ’으로 자연에 인륜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연의 실상 ’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후에 의미부여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연에 기존의 인간의 사회윤리를 투영해서 해석하는 것과 자연현상 그대로를 관찰해서 인간사회에 유용한 교훈을 얻어내는 것은 그 선후와 인과가 다른 것이다. 진명은 유가의 도덕적 자연관으로 자연현상을 해석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섣부른 가치판단이 개입할 경우, 그 실상을 놓쳐버리기 쉬운데, 진명의 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즉 시를 통해 도덕보다는 존재의 실상을 포착하고 전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에서 진명 권헌의 시에 우화적으로 형상화된 자연을 검토하려는 것은 그의 이러한 시세계가 우리 한시문학사의 흐름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 사회의 모순을 이렇게 우화적인 시로써 형상화한 것은 다산茶山 정약용의 시세계에서 보인 점인데, 다산에 앞서 진명이 이미 전개한 그러한 시세계를 깊이 열어 보인다는 것이 한시문학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2장 ‘ 약육강식의 질서속 생존의 지혜 ’에서 이박사는 진명의 시 중에서 벌환伐鑛·건골행健鶻行·건우행健牛行·관노응박치觀老鷹搏雉 등의 작품을 분석하고, 3장‘ 생존의 고달픔과 생존의 참 의미 ’에서는 진명의 작품중 공창작空倉雀·노우행老牛行 등의 시를 심층분석해 보이고 있다.

‘ 맺음말 ’에서 이박사는‘ 훌륭한 문학은 그 시대를 담아낸다고 했다. 그 소재가 어떠한 것이든 거기에는 시인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과 시대의 고민이 담기기 마련이다. 진명의 우화시에는 강자의 횡포와 약자의 비참함, 강자의 방심과 약자의 오기서린 저항, 약자의 고단한 생존, 타고난 처지가 좋은 듯하지만 사실은 불행하기 그지없는 빛좋은 개살구인 존재가 그려져 있다. 진명의 시에 소재로 등장한 동물의 이미지들은 진명이 살았던 18세기의 사회현상의 하나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 그 서두를 시작하고 18세기 우리나라 선각문인들의 우화적 표현 유형을 개괄한 다음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미 오래 전에 다산의 우화시의 문학적 성과가 학계에 보

4면으로 계속